



[대한국사-윤승규]

2016년 국가직 7급 한국사 해설

(㉔책형)

문제 및 해설

문 1.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돌검을 사용하였다.
- ② 빗살무늬토기에 도토리 등을 저장하였다.
- ③ 유적으로는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 ④ 주먹도끼, 찌개 등 돌로 된 사냥 도구를 만들었다.

정답 ①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은 무르고 흔하지 않아서 농공구와 같은 일반적인 도구는 제작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다양한 돌 도구가 많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는데, 특히 돌검이나 돌화살촉 등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그중 일부는 금속 제품을 모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자연에서 채집한 도토리를 빗살무늬 토기에 저장하였다가, 갈돌과 갈판을 사용하여 갈아 먹었다. 도토리는 당시의 중요한 식량이었는데, 이는 경남 진주 상촌리 유적이나 창녕 비봉리 유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유적은 구석기 유적에 해당하며, 주먹도끼, 찌개 등 돌로 된 사냥 도구들도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이다.

문 2. 팔호 안에 들어갈 고려시대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초에 ()을(를) 설치하여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로 판사(判事)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使)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좌(合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 『역옹패설』 -

- ①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하였다.
-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의 일을 맡았다.
- ③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 ④ 양계의 축성 및 군사훈련 등 국방문제를 논의하였다.

정답 ④

팔호 안의 정치기구는 도병마사에 해당한다. 도병마사의 기원은 989년(성종 8)에 설치된 동서북면병마사의 판사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서북면과 동북면에 파견된 병마사를 중앙에서 지휘하기 위해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을 판사로 삼았는데, 이 병마판사제가 뒤의 도병마사의 모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도병마사는 양계 지방의 축성·둔전·국경, 장졸에 대한 상벌, 주·진민에 대한 진휼 등 변경·군사·대의 문제를 의논·결정하였다.

오답풀이 ① 중추원, ② 삼사, ③ 어사대에 해당한다.

문 3.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국대전』-성종대 육전체제의 법전으로 완성하였다.
- ② 『대전회통』-법규교정소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
- ③ 『대전통편』-18세기까지의 법령을 모아 원숙증 표식으로 체계화하였다.
- ④ 『속대전』-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어 간행하였다.

정답 ②

고종은 독립 협회를 해산한 다음, 황제 직속으로 법규 교정소를 설치하여 지금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대한국 국제는 만국 공법에 의거하여 대한 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며,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오답풀이 『대전통편』은 정조 시기에 편찬된 법전으로 『경국대전』의 내용을 원, 『속대전』의 내용은 속, 추가 법령의 내용은 증으로 표기하여 정리하였다. 『대전회통』은 고종 시기에 대원군의 주도로 조두순이 주관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조선의 마지막 법전으로 원·속·증·보의 형식으로 편찬하였다.

문 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호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고, 몇 달 후에는 부속으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을 약정하였다.

- ① ㉠-개항장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 ②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하였다.
- ③ ㉢-일본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 ④ ㉠, ㉡,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

정답 ③

조일 무역 규칙은 1876년 8월에 체결되었으며 곡물의 무제한 수출 허용, 일본에 대한 수출입 상품의 무관세, 일본 선박의 무항세 등이 규정되었다.

오답풀이 ① 일본화폐의 개항장 유통 허용은 ㉡ 조·일 수호조규 부록의 내용이다. ② 연해안 측량권은 ㉠ 조·일수호조규의 내용이다. ④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치외법권은 ㉠ 조·일수호조규에만 규정되어 있다.

문 5. 시기별 대외 교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조선-위만정권은 진국과 한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였다.
- ② 통일 신라-교토로인 신라도를 통하여 당과 직접 교역하였다.
- ③ 고려-송에 종이와 인삼을 수출하고 서적과 약재를 수입하였다.
- ④ 조선-류큐 및 동남아시아에서 물소뿔, 침향을 들여왔다.

정답 ②

신라도는 발해에서 통일 신라로 가는 교통로로 문왕 시기에 개설되었다.

오답풀이 ① 위만 조선은 남방의 진 및 동방의 예와 한을 잇는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③ 고려는 최대의 무역국인 송에 종이·인삼·먹·붓·나전칠기·화문석 등을 수출하였다. 고려의 종이와 먹은 품질이 우수하여 송에서 선호하는 물품이었다. 또한 송으로부터는 서적·비단·약재·악기 등을 수입하였다. ④ 조선은 류큐 및 동남아시아에서 물소뿔, 침향, 목향, 소목 등을 들여왔는데, 특히 류큐와는 16세기 이후 교역이 줄어들었지만 양국 사신이 연경에서 만나 표류민 교환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문 6.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자제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중략)… 조정에서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가의 노비도 서토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한(平漢)’이라고 말한다.
(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침학하였기 때문이다. 환포와 도결 6만 냥을 가호(家戶)에 배정하여 백징(白徵)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봉기했던 것입니다.

- ① 정약용이 유배 중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 ② 홍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였다.
- ③ 이승훈이 사행 중 천주교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 ④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정답 ①

(가)는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나)는 1862년에 일어난 진주민란이다. 목민심서는 유배 중부터 저술되기 시작하여 풀려난 해인 1818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집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홍선대원군의 경복궁 증건은 1865년부터 1867년 말까지에 해당한다. ③ 이승훈이 사행 중 천주교 세례를 받고 돌아온 시기는 정조 재위기인 1784년경 이다. ④ 양헌수의 정족산성 전투는 1866년이다.



문 7. 밑줄 친 ‘대왕’이 재위하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중략)…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였다. 원하오니, 우리 대왕의 수명을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게 하소서.

- ① 사비의 왕흥사가 낙성되었다.
- ② 22담로에 왕족을 보냈다.
- ③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 ④ 노리사치계가 왜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정답 ①

☞ 제시문의 내용은 미륵사지 석탑 안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의 봉안기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 무왕의 왕비가 선화 공주가 아닌 사택적덕의 딸로 밝혀져 많은 논란을 낳았다. 현재는 무왕의 재위기가 41년으로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과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라는 기록을 남긴 삼국유사의 오류 가능성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 왕흥사는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법왕 시기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무왕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7년 탑지에서 창왕명 청동제 사리함이 발굴되어 조성 시기가 위덕왕(창왕) 시기라고 보는 설도 크게 주장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무령왕, ③ 근초고왕, ④ 성왕 시기에 해당한다.

문 8.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계에서는 조세를 현지 경비로 사용하였다.
- ② 조창에서 개경까지의 운반은 조창민이 담당하였다.
- ③ 조운량이 증가하자 주교사 소속의 배를 이용하였다.
- ④ 조운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이었다.

정답 ③

☞ 고려 시대의 양계는 조세를 현지의 군사비 사용 목적으로 쓰고 수도로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창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문종 시기 13개 조창이 설치되었는데, 13개 조창은 저마다 가까운 고을에서 거둔 세곡을 보관했다가 이듬해 2월부터 보내기 시작해 가까운 조창은 4월까지, 먼 곳은 5월까지 조운을 마쳐야 했다. 운반은 판관의 주재 하에 조창민이 담당하였다.

오답풀이 주교사는 조선 정조 때 설치된 기구로 배다리 건설 및 호서·호남 등의 조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와는 관련이 없다.

문 9.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서양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서 멀리해야겠지만, 서양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 오늘날 급선무는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중략)…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更張]고 한다.

- ① (가)-개벽 사상을 담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가)-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국 군대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 ③ (나)-만동묘 첩폐를 주도하였다.
- ④ (나)-보부상단을 통괄하는 해상공국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정답 ②

☞ (가)는 고종이 내린 개화에 대한 교서이며 (나)는 김옥균 등 개화당의 주장이다. (가)는 동도서기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이 주장을 한 사대당 세력은 명성황후와 연대하여 청군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오답풀이 ① 동학은 최제우에 의해 1860년에 창도되었다.
③ 만동묘 첩폐를 주도한 것은 흥선 대원군이다.
④ (나)는 해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문 1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회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펑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에게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그리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 ① 회담 당사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
- ②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의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 ③ 회담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정답 ④

☞ 자료의 선언문은 카이로 회담(1943. 11)의 내용이다. 이 회담의 한국에 대한 결의 사항은 강대국들의 합의에 의한 최초의 독립 약속이었지만 즉각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루스벨트의 신탁 통치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오답풀이 ① 회담 당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었다.
② 신탁통치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③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1941년에 발표되었다.

문 11. 1930년 이후 전개된 해외 독립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홍진, 이청천 등이 만주에서 한국독립당을 발족하였다.
- ② 임시정부가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자 개헌하였다.
- ③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④ 태항산 지역에서 조선의용군이 팔로군과 협동작전을 벌였다.

정답 ②

☞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중심 집단지도체제 개헌은 침체기인 1927년도의 일이다.

오답풀이 만주 지역의 한국독립당 발족은 1930년,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는 1932년이다. 태항산 전투는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접전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팔로군과 연계해 전투를 치렀으나, 1942년 7월 동 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후 조선의용군에게 승계되었다.

문 12. 밑줄 친 ‘농서’가 편찬된 왕대의 경제생활로 옳은 것은?

각 지역의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옛글과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도의 감사들이 주현의 늙은 농부를 방문하여 실제 농사경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정초 등은 이를 참고하여 농서를 편찬하였습니다.

- ① 칠폐 시장에서 어물을 판매하였다.
- ② 녹비법을 활용하여 지력을 회복하였다.
- ③ 고구마감자를 구황작물로 활용하였다.
- ④ 시전에서 남초를 거래하였다.

정답 ②

☞ 밑줄 친 농서는 15세기 세종 재위기에 편찬된 <농사직설>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녹비법을 비롯한 시비법의 진전으로 땅의 지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

오답풀이 조선 후기에는 현 남대문 시장의 기원이 된 칠폐에서 어물을 비롯한 난전 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고구마는 영조 시기, 감자는 19세기 초에 전래된 구황작물이다. 남초라 불렸던 담배 역시 조선 후기에 전래되었다.

문 13. 우금치 전투가 진행된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알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부가 개국기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②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 ③ 고종이 흥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④ 지방제도가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정답 ①

☞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시의 싸움으로 1894년 11월(양력 12월 초)에 전개되었던 전투이다. 이 시기는 갑오 2차 개혁의 추진 이전이기 때문에 1차 개혁의 내용만을 알 수 있었다. 개국기년의 사용은 1차 개혁의 내용이다.

오답풀이 ②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1896년부터 사용되었다.
③ 흥범 14조는 2차 개혁의 출범 당시인 1894년 12월(양력 1월)에 발표되었다.
④ 8도의 23부 개편도 2차 개혁의 내용이다.

문 14. 괄호 안에 들어갈 국가의 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에 국서를 보냈다. “삼가 고려국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보내신 글을 보니 날짜 아래 관품과 이름을 쓰지 않았고 글의 말미에는 천손(天孫)이라는 칭호를 써 놓았습니다.”
- 『속일본기』 -

- ① 북성·중성 등 4개의 성곽으로 이루어졌다.
- ② 연못, 인공섬을 갖춘 월지를 동궁으로 사용하였다.
- ③ 나성 및 궁궐 후원에 해당하는 부소산이 있었다.
- ④ 직사각형의 내외성, 주작대로를 만들었다.



정답 ④

()안에 들어갈 국가는 발해이다. 발해의 대표적 도성은 상경 용천부로 상경은 직사각형의 외성을 두르고 다시 중앙 북방에 황성을 쌓은 형태이다. 또한 남쪽으로 주작대로를 설치하였다.

- 오답풀이** ① 내성·북성·중성·외성 등 네 개의 성곽으로 구성된 것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이다.
② 도교의 세계관을 표현한 월지를 동궁으로 사용한 것은 통일신라이다.
③ 사비 천도 이후의 백제에 해당한다.

문 15.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위도총부가 군무를 통괄하였다.
② 지방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관을 편제하였다.
③ 잡색군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④ 금위영을 설치하여 도성을 수비하였다.

정답 ④

금위영은 조선 후기인 숙종 시기에 설치된 군영으로 경신환국(1680) 직후인 1682년 서인에 의해 남인이 설치한 훈련별대와 병조판서가 관할하는 정조청을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영조 시기 수성윤음으로 도성을 지키는 3군문의 하나가 되었다.

문 16.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을 지급하였다.

	㉠	㉡	㉢
①	관료전	식읍	민전
②	관료전	녹읍	정전
③	공음전	식읍	정전
④	공음전	녹읍	민전

정답 ②

신문왕 7년 5월에 지급된 것은 관료전, 신문왕 9년 1월에 혁파된 것은 녹읍, 성덕왕 21년 8월에 백성들에게 지급된 것은 정전에 해당한다.

문 17. ㉠과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양식은 고려시대의 일반적 건축양식이었다.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하는 (㉣)양식 건물은 고려후기에 등장하지만 조선 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 ①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한 맞배지붕 형태이다.
② ㉠-팔작지붕인 봉정사 극락전은 장엄하고 화려하다.
③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사찰의 전통을 이었다.
④ ㉣-맞배지붕의 성불사 응진전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④

㉠은 주심포 양식, ㉣은 다포 양식이다. 고려 후기의 성불사 응진전(맞배지붕), 석왕사 응진전(맞배지붕), 심원사 보광전(팔작지붕) 등이 다포 양식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의 팔작지붕,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에 해당한다.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에 해당하는 수덕사 대웅전은 유일하게 백제 계열의 건축 양식을 계승한 건물로 충렬왕 시기에 세워진 것이다.

문 18.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라고 하였다. 그는 당에서 스승을 좇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乾符) 원년 갑오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선주(宣州)의 율수현위에 임명되었다.

- 『삼국사기』 -

- ①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을 저술하였다.
② 난랑비 서문에서 삼교 회통의 사상을 보여주었다.
③ 『법장화상전』에서 화엄종 승려의 전기를 적었다.
④ 사산비명의 하나인 고선사 서당화상비문을 지었다.

정답 ④

밑줄 친 ‘그’는 고운 최치원이다. 그는 신라의 고유 왕호를 중국식 왕명으로 통칭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왕연대력』을 저술하였다. 또한 난랑비 서문에서 유·불·선을 포용한 풍류도를 언급하였다. 『법장화상전』은 최치원이 지은 당나라 승려 법장의 전기이다.

오답풀이 사산비명은 승엄산 성주사 대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명(국보 제8호),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령탑비명(국보 제47호), 초월산 대승복사 비명, 회양산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명(보물 제138호)에 해당한다. 이것은 세 선사의 행적과 화엄종 계열의 왕실 원찰인 대승복사의 창건 내력을 적은 비문으로, 모두 왕명에 의해 찬술되었다. 고선사 서당화상비문은 원효의 업적을 새긴 비문으로 원효의 후손에 의해 찬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최치원과는 관련이 없다.

문 19.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② 1920년대-미국 증산을 표방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1930년대-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④ 1940년대-전체 농민까지 식량 공출을 강제한 식량관리령을 제정하였다.

정답 ③

1918년에 설립된 조선식산은행은 1906년 6월부터 각 지방에서 설립된 6개 농공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 은행이었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에서 농업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인의 직접적인 투자와 경영에 의존하는 대형 개발은행으로 설립했다. 이후 전국에 60여개의 지점을 두어 지방에까지 금융조직망을 확대시켰다. 조선 총독부가 은행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며, 총독부 산하의 산업 정책 금융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오답풀이 회사령의 공포는 1910년, 산미증식계획의 수립은 1920년, 식량관리령은 1943년에 제정되었다.

문 20. 밑줄 친 ‘이것’이 수행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당면한 한반도 문제를 심의하는 데 선거로 뽑힌 한반도 국민의 대표가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 (중략) ... 참여할 한반도 대표가 한반도의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반도 주민에 의하여 정당히 선거된 자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이것을 설치하여 한반도에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에 한반도 전체에서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결의한다.

- ① 소련의 방해로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감시하였다.
②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③ 한국 경제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였다.
④ 남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정답 ①

자료의 이것은 선거 관리를 위해 파견될 유엔 임시 한국 위원단을 말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1948년 1월 남한에 입국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35도선 이북으로는 건너갈 수 없었다. 김구 등에 의해 추진된 남북협상이 결렬되자 이 조직은 남한지역에서만 선거를 관리하였다.

- 오답풀이** ② 6.25 전쟁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③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회원국
④ 유엔 결의에 해당한다.



[윤승규 선생님의 총평]

2016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은 올해 출제된 9급 국가직 문제와 더불어 예년 시험보다 난이도가 많이 상승하였다.

시대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1문항, 고대사(삼국 ~ 남북국)에서 4문항, 중세사(고려)에서 3문항, 근세사(조선 전기)에서 2문항, 근대 태동기(조선 후기)에서 2문항, 근현대사의 한말에서 3문항, 일제 강점기(독립 운동)에서 2문항, 해방 이후(현대 사회의 발전)에서 2문항, 시대 통합형으로 1문항이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의 출제 비중은 7문항으로 최근 7~8년간의 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7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류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사를 포함한 정치사의 비중이 10문항, 경제사 4문항, 정치사와 사회사를 결합한 유형으로 1문항, 문화사 5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압도적으로 정치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경제사와 문화사의 비중이 높으며 사회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치러진 공무원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난도 차이가 유난히 심했다는 점이다. 쉬운 문제는 바로 답을 구하기가 수월했던 반면, 어려운 문제는 지엽적이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대체적으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항은 최치원에 대한 문제이며, 건축의 지붕 및 공포 양식에 대한 문제, 고려의 조운제도, 발해의 도읍과 관련한 문제, 무왕 관련 미륵사지 사리 장엄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해방 정국의 두 문제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절반 이상의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분류사적 관점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고득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출제 경향이 분류사적 특성을 띠고 정교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최치원의 사산비명 및 연보에 대한 문항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이며, 지붕 양식과 공포 및 기둥 양식은 언제나 짝을 이루어 학습했어야 하는 문항이었다. 또한 조운 제도 및 각 국의 도성, 미륵사 사리 장엄에 대한 내용 역시 한 번쯤은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다소 쓴 소리지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다. 대비하지 못할 문제는 한 두 문항에 불과하다. 사실 올해 출제된 문항들은 필자가 대부분 7급을 대비한 예상 문제로 출제한 바 있다.)

최근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의 유형은 전반적으로 한국사 인증 시험 및 수능 시험 유형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 암기형의 문제는 철저히 지양되고 중요사건의 순서나 연관된 시대 상황 및 역사적 사실, 시사적 특성과 연계된 문제가 많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내용은 놀랄 만큼 자세하고 지엽적이며, 현재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전부터 강조해오던 학습 전략을 개략적으로 다시 제시해보려 한다.

학습 전략

- ◎ **정치** : 정치사는 각 시대를 규정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각 시대별 사건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신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주로 사료제시형의 문제가 많다. 이러한 분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시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료분석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각 제도사의 특징을 명확히 분석, 정리하는 것도 관건이다. 각 시기의 중앙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의 변천과정 및 기능 분화를 정리하고 그 중요 특징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학습법은 효율적으로 고득점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 ◎ **경제** : 최근 시험에서는 기초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지만 경제사는 무시하지 못할 어려운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 경제사 부분의 공략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다른 시험을 참고해보면 이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대태동기라 할 수 있는 조선후기의 경제변동이 많이 출제되었다. 제도의 변천이나 생산력의 발달,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등이 주로 다루어졌는데 의외로 통일신라나 고려의 경제상황이 가끔 출제되기도 한다. 기존 시험에서 민정문서의 분석이나 전시과 등의 토지제도가 주된 출제 포인트였다면 최근에는 시대 상황과 수취제도 및 토지제도 변천, 산업의 발달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는 문제가 새로운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제도의 변화상, 상업, 수공업, 무역 등 경제의 제반적 발전 과정을 주로 정리하고 공략할 필요가 있다.
- ◎ **사회** : 신분제 변동, 사회구조의 변화 등이 가장 주목해야할 출제 포인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사가 강조되는 흐름에 맞추어 각 시대별 사회구조 중 향촌사회의 특징 및 생활 풍습,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공동체 조직 비교, 여성의 지위 변화, 노비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 ◎ **문화** : 문화는 주제별 공략을 철저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시기의 문화적 특징과 속성을 분석하고 큰 밑그림을 그려둔 후 불교문화, 유교문화, 과학기술, 고분, 탑 등 여러 주제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훈련이 요청된다. 대개 지엽적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쪽이 문화사인데 무조건적 암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시대별 경향을 살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구조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 **기본서의 빈출 사료들을 점검** : 중요한 기본서에 언급된 사료들을 자주 분석,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각 시대의 시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상의 종합적 이해라는 면에서 꼭 필요한 학습법이지만 시험에서 자신감을 배가시키고 빠르게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데 가장 유용한 학습법이 될 것이다.